

쇼트트랙 황대헌 '또 반칙'으로 실격

박노원과 충돌...국가대표 1차 선발전 남자 1000m 탈락



7일 서울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24-202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남자 1000m 예선 7조 경기, 황대헌(파란 헬멧, 강원도청)과 박노원(노란 헬멧, 화성시청)이 질주 도중 접촉하고 있다.

'킥잡 논란'을 일으켰던 쇼트트랙 황대헌(강원도청)이 또 반칙을 범했다.

황대헌은 7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02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남자 1000m 2차 예선 7조에서 반칙으로 실격돼 준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김건우(스포츠토), 박노원(화성시청), 신다운(경기일번), 홍인규(한국체대)와 함께 레이스에 나선 황대헌은 선두로 나서다 경기 중반 김건우에게 선두를 내줬다.

이어 박노원에게 인코스룰 주월당하자 거친 플레이로 박노원과 충돌했다.

황대헌은 김건우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주심이 페널티를 주 실격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황대헌이 받은 반칙 코드는 S9으로 직선 주로에서 바깥쪽 선수가 공간을 내주지 않을 때 받는다"고 설명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1500m 금메달리스트인 황대헌은 이번 시즌 잦은 반칙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시리즈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계랭킹 1위 박지원(서울시청)에게 총 3차례 반칙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박지원은 부상을 입었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계주 은메달 1개를 따는 데 그쳤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황대헌의 반칙은 계속됐다.

지난 6일 열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남자 500m 준결승에서 박지원과도 충돌했고, 박지원은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황대헌은 페널티를 받지 않아 결승에 올랐다. 또 랭킹포인트

도 5점 획득했다.

황대헌은 지난달 세계선수권대회 귀국 인터뷰에서 박지원을 향한 반칙이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국내 선발전에도 반칙이 계속되면서 고의성에 대한 의심은 더 커지고 있다.

차기 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는 1, 2차 선발전 총 6개 종목 점수를 합산해 정한다.

남자부는 총 8명을 뽑고, 상위 3명에게 차기 시즌 국제대회 개인전 우선 출전권을 준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24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가장 좋은 개인 성적을 낸 1명에게 차기 시즌 태극마크 우선 선발권을 줄 예정이다.

그러나 유력한 후보였던 박지원이 금메달을 따지 못해 우선 선발 기회를 놓쳤다.

병역 의무가 남은 박지원은 다음 시즌 국가대표에 뽑히지 못하면 입대가 불가피해 2026 밀라노·코르티나대회 동계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진다.

반면 황대헌은 이미 올림픽 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은 상태다.

뉴스시스



제22회 엠마우스퍼풋살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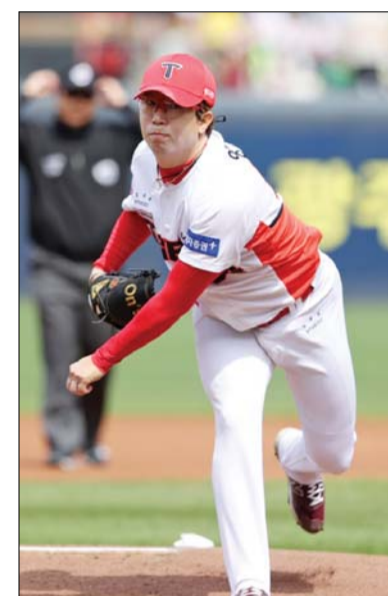
일시 2024년 4월 6일(토) 0

강기정 광주시장, 제22회 엠마우스퍼풋살대회 참석

주시장이 지난 6일 오전 서구 상무시민공원 운동장에서 열린 '제22회 엠마우스퍼풋살대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KIA 양현종, 통산 1만 타자 상대

KBO 역대 두 번째 기록...송진우 1만2708명 기록



KIA 타이거즈 왼손 투수 양현종(36)이 통산 1만 명의 타자를 상대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양현종은 7일 광주-기아 챔피언

스피드에서 열린 2024 신한 쏠뱅크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 경기에 선발 등판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통산 9985명의 타자와 맞붙었던 양현종은 3회 2사 2, 3루에서 삼성 김민섭을 중견수 뜬공으로 잡아냈다. 동시에 이날 15번째 타자와 승부하면서 통산 1만 타자를 상대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KBO리그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첫 번째로 이 기록을 일군 송진우는 역대 가장 많은 1만2708명의 타자와 마주쳤다.

2007년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뛰어난 양현종은 이날 경기 전까지 486경기에 등판해 168승114패 평균자책점 3.81을 기록 중이다. 통산 168승도 송진우(210승)에 이어 역대 2위다.

현역 선수 중에는 최다승을 기록하고 있다.

황유민,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우승...윤이나 공동 34위

국내 개막전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신지애 공동 31위



황유민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4시즌 국내 개막전인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에서 우승했다.

황유민은 7일 서귀포시 테디벨리 골프&리조트(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2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쳤다.

이로써 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

로 2위 박혜준을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7월 대우위니아 MBN 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던 황유민은 약 9개월 만에 KLPGA 투어 통산 2승에 성공했다.

또 대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다. 황유민은 우승 상

금 2억1600만원을 받았다.

3라운드까지 54홀 노보기 경기를 펼쳤던 황유민은 2번 홀(파4)에서 첫 보기를 범한 뒤 3번 홀(파3)에서도 보기를 추가하며 흔들렸다.

다시 중심을 잡은 황유민은 4번 홀(파5)에서 버디에 성공한 뒤 6번 홀(파4)과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선두를 이어갔다.

18번 홀(파4)에서 파 퍼트가 성공한 뒤 박혜준의 버디 퍼트가 실패하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해 드림투어(2부)에서 뛰다 정규투어로 복귀한 박혜준은 우승을 놓쳤지만, 개인 최소 성적을 거뒀다. 아마추어 김민섭은 공동 8위(8언더파 280타)로 톱10에 들었다.

3년 8개월 만에 국내 대회에 나선 신지애는 공동 31위(3언더파 285타), 1년 9개월 만에 복귀한 윤이나는 공동 34위(2언더파 286타)로 복귀전을 마무리했다.

'이재성 2골 1도움 맹활약'

마인츠, 다름슈타트 4-0 완파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재성이 맹활약한 독일 프로축구 마인츠가 대승을 거뒀다.

마인츠는 7일(한국시간) 독일 마인츠의 메와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시즌 분데스리가 28라운드 홈경기에서 다름슈타트를 4-0으로 완파했다.

3경기 연속 무패(2승1무)를 달린 마인츠는 리그 16위(승점 23)로 올라섰다.

18개 팀이 속한 분데스리가는 17~18위가 다이렉트 강등된다.

15위까지는 분데스리가 잔류하고, 16위는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쳐 잔류에 도전할 수 있다.

마인츠에 패한 다름슈타트는 최하위(승점 14)에 머물렀다.

마인츠의 대승에 앞장선 건 이재성이었다.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뒀 이재성은 2골 1도움을 올렸다.

한화 열풍...고척돔, 개장 후 첫 3경기 연속 매진

키움 히어로즈가 고척스카이돔을 홈구장으로 사용한 이래 최초로 3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했다.

키움 구단은 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4 신한 쏠뱅크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가 매진됐다고 밝혔다.

오후 2시 경기 시작 후 29분이 지

난 오후 2시 29분께 1만6000장의 표가 모두 팔렸다.

류현진이 선발 등판했던 5일과 토요일에 펼쳐진 6일 경기에도 만원 관중이 들어찼다.

한화 류현진의 복귀와 시즌 초반 7연승 돌풍을 앞세워 KBO리그의 흥풍을 이끌고 있다. 뉴스시스

삼형제 | 주메뉴 : 삼형제생갈비, 삼형제꽃살 | 개별룸 단체석

예약 061-337-3836

나주시 산포면 영산로 5984-91 (나주 혁신도시 빛가동 중흥3차 옆)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숯불생갈비 1인분(180g) 9,900원

[삼형제 철학] 최상의 맛, 최상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좋아요